

건축과 공간기하학

Architecture & Space-Geometry

최 옥 / K&C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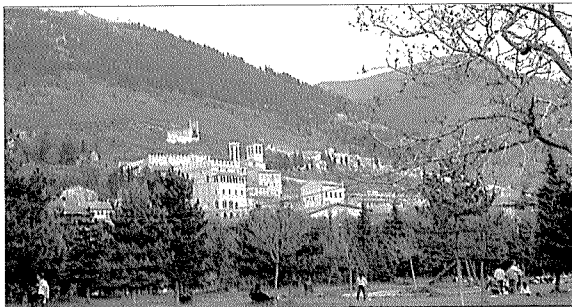
by Choi Wook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의 거리풍경을 그린 후기 작업

건축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건축가의 작업을 평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비평의 목적이 사사로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름함이 아니며 역사적·문화적 문맥에서 사물의 절대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역사가와는 달리 건축가는 가능성을 찾아 행하는 자로써 사물을 미학적 오브제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탄계겐조나 오스카니마이어는 당시대의 거목이었다.

그러나 현대건축사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페이지는 없다. 건축가의 세계가 기대와 미래의 미지를 여는 쓰거움 이라면 역사가가 속한 세계는 긴 시간의 흐름속에 관조해야 하는 차가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비평은 작가가 그 시대에 향해 던지는 문제의식에 주목해야 한다. 비평의 역할이 작가와 그가 속한 사회, 시대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개인과 역사와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라면 건축가는 비평의 정확한 수행자는 아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가 저급 대중문화의 양적 우위에 노출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중세산성도시인 구비오(Gubbio)의 전경

자본이 건축의 한계를 결정짓는 구체적요소로 작용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에 맡겨진 건축은 보다 물리적이고 피상적이 되었다. 오늘날의 건축은 분명 국제 공통언어의 확립을 위해 전쟁을 벌이던 50년대의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업화가 가속시켜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의 비평은 말이 아니라 작가의 성실한 도면으로 그 자리를 메꾸어야 한다고 타푸리는 이야기했다.

건축은 오랫동안 사회나 문화 이념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역할하여 왔다. 음악이나 미술보다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안과 미래의 예견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TV나 컴퓨터 등의 가상현실문화의 발달은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건축의 역할을 축소하여 왔다. 건축은 보다 건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건축가 김영섭의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읽고자함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이며 작가의 밖으로 던져진 작업의 단편을 체험하는 즐거움 일 것이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리처드 디벤콘(Richard Diebenkorn)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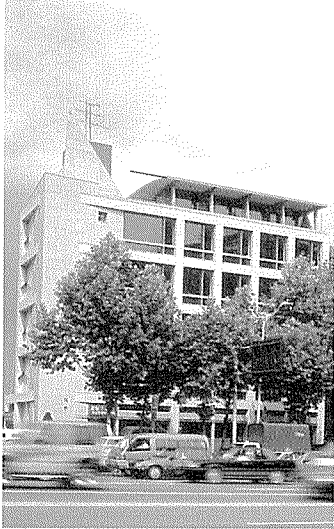
그는 수십년에 걸쳐 미국 서부의 도로를 그렸다. 그의 그림은 풍경화에 가까운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몇개의 선과 면을 가진 색채로 바뀌게 된다. 그가 수십년동안 그린 것은 도로가 아니라 사물에 관한 무엇이며 사물을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물의 무엇에 관한 끝없는 질문으로 그 물음에 점점 가까워졌을 것이다.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 앞선 일련의 작업에서 사물에 관한 그의 질문 혹은 일련의 반복되는 공유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축에서의 기하학은 건물의 고유한 기능의 부여처럼 명백히 그 건물의 성격을 가름하게 된다. 김영섭은 건축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된 적용은 아니나 서로 다른 기하학의 적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기하학은 공간을 정제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서로 중첩하여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위한 도구이며 형식언어의 출발로 보인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하학적 구축에 의한 건축은 아니다.)

“서대신동 주택”의 경우 사용된 두개의 축은 실제 공간에서 인지되는 기준 혹은 상징이 아닌 건축의 화두를 푸는 도구로 사용되어 다양한 공간 연출의 지속적인 축추가 되어 있었다. “양재동 빌딩”에서는 이



진입로인 다리에서 바라본 용문 청소년 수련장 전경

미 규모검토에서 형성된 볼륨의 해결책으로 주세페 테라니의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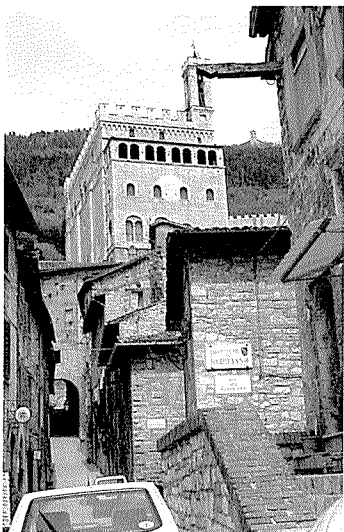
양재동 빌딩

사 텔 파쇼”의 정면이 은유적으로 인용되어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테라니는 기하학이 주는 미학적 가치는 계급이나 지식,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미학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건물 부분을 감정을 배제하며 수의 집합처럼 분해하고 구축하여 건축을 이루어냈다.

“대나무집”에서 인용된 라메종 드 베르(La Maison de Verre)의 유리 블럭이 만드는 이중 파사드는 주거전용지역에서의 식당이라는 기능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의 주택군과 면하는 대각선 가로에 설치하여 스크린 속으로 내부를 감춤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건축의 화두를 푸는 일련의 연속적이고 상이한 해결책의 건축어법과 기하학의 적용이 그의 건축의 궁극적 결과는 아니다. 이러한 형식언어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간과 건축구법이 점차로 김영섭화 되어지는 까닭이다. 그의 작업의 출발을 가져오는 이러한 모티프는 작업에 전제된 결과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고를 가능케하는 자극이며 에너지일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작업이 만들어 내는 지속성은 계단의 위치, 계단실의 배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건물의 계단을 길의 연장으로써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의 건축은 길의 연속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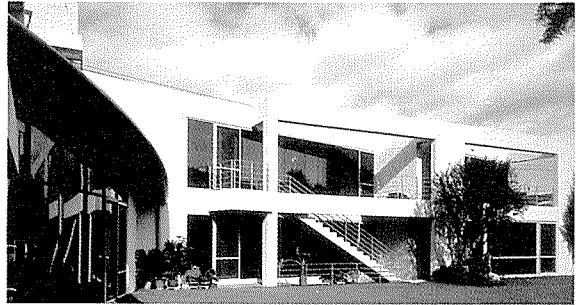
외부와 같은 내부 혹은 내부와 같은 외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면을 관찰하면 그가 인용하는 기하학의 적용이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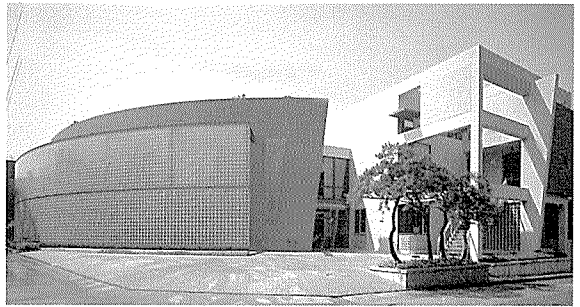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전망대를 가진 구비오의 전경



시각적 중심을 이루는 전망대를 가진 용문청소년 수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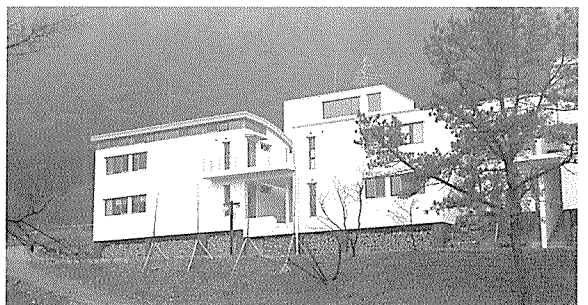
서대신동 주택 (전시시설)



대나무집

언어는 부분의 해결로 이용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김영섭 건축의 또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공간이 분절되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일소점 투시의 공간이 극히 자제되어 있는 점이다. 분절되어진 서로 다른 성격으로 공간이 병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길의 연속으로 이해되어지는 공용공간이 강조되어지는 엑소노메트릭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공간을 가진 건축을 투시도로 그리면 그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가 만드는 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아니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마당과 같은 연속체로써의 길이다.

용문 청소년 수련장의 평면도를 처음 본 것은 96년 12월 초, 비가 조금씩 내리는 흐린날 용문산 계곡으로 향하는 차안이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로 여러개의 건물이며 이루어진 집합체로 레벨이 있는 땅에 건축되어진 건물이었다. 복잡한 레벨 때문인지 많은 계단과 교차되는 동선 때문에 건물을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동서의 긴 축상에 몇개로 절곡된 도로를 배치하여 (이 도로의 절곡점에 마당이 있다) 크게 상하로 나누어 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는 점과 서로 다른 두



자연지형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물 전면 부분



구비오(Gubbio)의 골목



용문청소년수련장의 학생기숙사 중정

기능을 남북선상의 축이 공허부로 향하여 건물의 경관을 배려하고 있는 배치는 짐작이 되었

고 건물의 하부에 반달 모양의 기단부가 하부에서 상부로 향하여 형성되어 있었다.

역시 계단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경계에 형성되어 공간의 조형형성과 함께 건물의 주요부로 부각되어 있었다. 수려한 경관의 용문산 계곡의 입구에서부터 측면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수련장은 진입로인 다리에 이르면 주변의 지세와 균형을 이룬 전모가 드러나는데 배치도에서 보이는 정형성과는 달리 작은 스케일의 건물군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 사이로 공간과 측면이 시야에 들어와 풍부한 공간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진입로인 다리의 방향과 연장선상에 있는 남북의 긴 축이 건물군을 가로질러 용문산의 숲을 향하고 그 좌측에 시각적 조망의 중심이 되는 야외수업장이 탐처럼 배치되어 그 좌우로 수평의 긴 건축군을 형성하였다. 이 다리 즈음의 조망은 이탈리아 중부의 중세 산성도시인 구비오(Gubbio)를 연상시켰다.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는 로마시대부터 전래되는 동서의 가로중심에 마을의 상징이 되는 교회가 있고 그 중심으로 주거군 형성된 부정형의 도시이다. 이러한 중세도시들은 무척 따뜻한 인간미가 풍기



Girolamo Nadal(1595)에 의한 Adnotaciones et Meditationes in Evangelia

는데 상징물이 배경이 된 골목길과 사람들의 중첩된 층이 형성하는 깊이감 그리고 돌과 나무의 자연재료가 만들어내는 안정감 때문이다. 용문수련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었다. 드라이비트는 재료 본래의 물성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의 한계를 빛과 그림자 색채, 조형의 다양성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실 이러한 한계가 르 꼬르뷔제에게는 창작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기도 하다. 용문수련장의 외관은 흰색으로 마감되어 있다. 드라이비트의 흰 벽면이 만들어내는 면의 추상성에 부조처럼 얇게 떠인 창 의 표피와 지면에서 필로티로 떠 있는 하부의 질은 초록색이 전체 건물을 지면에서 떠올려 건물이 지면과 접지하고 있지 않은듯한 인상을 주었다. 계획상에 나타나는 기단부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시공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고 하부 필로티의 색깔이 건물의 외벽과 같은 색으로 처리했으면 이러한 분리 현상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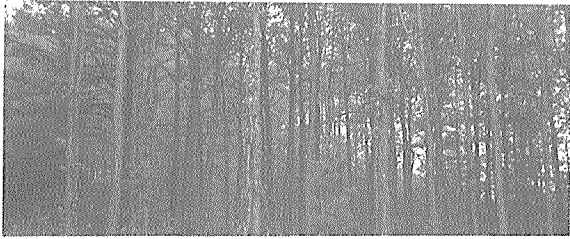
흑으로 반원형의 기단이 사실 형성되어 있기에 옅과 건물의 접지는 무척 이 건물에서 중요하다. 건물의 연장으로써 기단(흑 부분)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의 공간과 골목(?)길을 산책하면서 흥미로왔던 것은 건물의 곳곳에서 중세산성도시 혹은 지중해의 벽이 만드는 건축, 르 꼬르뷔제의 파편, 바라강의 색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패러디화되어 있는 이 건축이 왜 늘상의 김영섭건축인가 하는 점이다. 용문 수련장의 배치도를 수직(동서방향)으로 세워놓고 이 공간을 동양의 수목화의 기법 즉, 하부에서 상부로 공간을 나열시켜 놓은 공간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현은 기법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의 근원적 다름이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르네상스의 일소점 회화를 이집트식 그림으로 옮길 때 표현의 변화가 아닌 사고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부연하여 한 예를 설명하

던 일소점투시화법으로 그려진 이탈리아의 성화를 중국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인에 의해 다시 등각투시도법으로 옮겨 놓은 그림이 있다.



Giovanni da Rocha(1620)에 의한 중국인을 위한 복제품

주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일소점투시의 화면이 등각투시도로 바뀌는 순간 주변과의 상황, 관계가 동일시 되어 주제와 부제의 상대적인 관계가 묘사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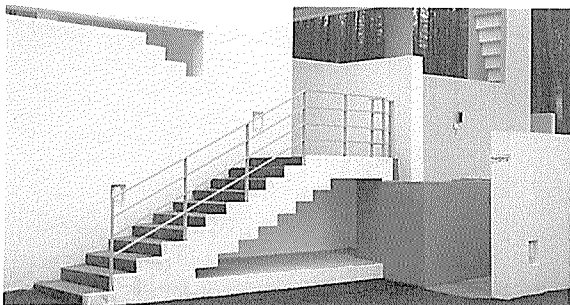
담이 만드는 풍경



담이 만드는 풍경

그림으로 바뀌게 된다. 마치 일본의 영화감독 오즈가 카메라를 방에서 마당으로 고정시켜 놓고 주변에서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는)의 소리, 그림자, 움직임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동양의 공간을 묘사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건축가 김영섭의 병치된 공간의 수법은 목조건축이 가지는 공간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중첩되는 소리의 겹침, 빛이 만들어 내는 혹은 빛이 닿지 아니하는 부분의 공간화, 결코 폐쇄되지 않는 공간의 자연스런 체득의 발로는 아닐까? (그는 한옥을 사랑하고 한옥에서 살고있다) 그의 건축은 완성도에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다. 그가 설정한 목표를 위한 치열함보다는 현실의 가능성 위에 설정해 놓은 한계에서 계산된 그의 교묘한 전략을 이룬다. 용문수련장의 지붕의 마감 재료는 노출된 방수재 그 자체로 아이빔 구조 철물이 물 흡통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도는 그의 건축의 장점이지만 궁극적 그의 건축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건축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원단(도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천의 얼굴이어야 한다.” (Plus 9607. 김영섭)는 그의 말은 실은 그의 건축이 종종 일관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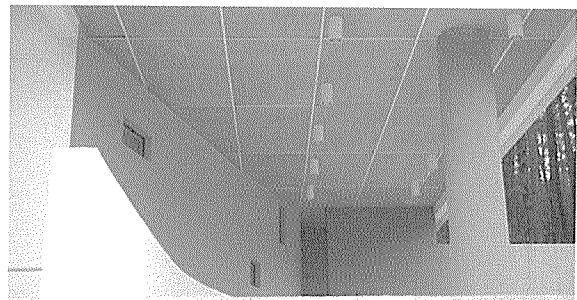
의 지속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용문수련장에 쓰인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어휘는 적절히 조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언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다.

르 꼬르뷔제는 재료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의 균형을 위한 색채 사용 (내·외부, 빛을 받는 부분과 역광이 들어오는 부분 등의 차별 배려), 빛을 받아 들어오는 문제(빛은 창과 더불어 반사할 수 있는 면에 의해 빛의 질이 좌우된다), 삼차원적 볼륨의 매스감 등 일련의 지속적이고 통일적인 언어를 유지함으로써 표현으로 드러난 것과 감추어져 에너지로 남을 수 있는 내적 완결성을 집약함으로써 감동적인 공간을 남겼다.

그가 이야기하는 “천의 얼굴”은 잠시 그가 머물러 지나가는 방패막이었으면 한다. 그는 현실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냉정히 한계를 파악하여 현실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의 작업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김영섭의 건축을 보면서 보다 내적 완결성이 있는 작업으로 진행되리라 믿어진다.

날날이 건축의 해부를 글로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는 한 작가가 시대에 대해 던지고 있는 문제의식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사라졌으며 모든 정보가 열렸고 쉽게 교환되는 이 즈음에 우리 건축계의, 건축가의 자기 정체성 찾기는 누구에게나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 케네디 프램프톤은 “비평적 지역주의”를 이야기한다. 이에 이탈리아의 신랄리주의자들 중 일부는 “비평적 국제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응답하였다. 하나의 이름(-ism)이나 스타일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다.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업 대중문화의 확산에 대응하는 화두로 삼으려는 지적 전략인 것이다. Interval이 없는 시대라 한다. 생각할 틈 없이 다음 행동으로 강요받는 시대이다. “잃어버린 interval을 찾아서”, interval이라는 개념의 상실 혹은 멸종속에 우리 모두는 같은 배에 있다.



중심마당의 조형 및 색채의 사용

※ 위의 두 사진(담이 만드는 풍경)과 아래의 두 사진은 서로다른 건축어휘로 사용되어 다른 건물처럼 느끼게 한다